

《나의 마지막 남은 검은 머리카락 하나》 되돌아 갈 수 없는 젊음, 그러나 나이듦의 즐거움

글 송보경 기자



《나의 마지막 남은 검은 머리카락 하나》
장 루이 푸르니에 지음 | 백선희 옮김 | 정신의서가 | 212쪽 | 값 9,500원

흔히들 내세우는 홍보용 문구 중에 ‘깊은 성찰을 일깨우는’ ‘성숙한 인격을 위해 꼭 읽어야 하는’ 등등을 볼 때면 ‘구태의연해!’ 외치다가도 은근슬쩍 웬지 읽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다. 말에 구속되는 것인지 결국 인간의 알팍한 감성과 이성이 상업적 머리 싸움에서 밀리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문구는 끊이지 않고 진화해 독자의 뇌와 마음에 전달되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일테니 순기능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 궤변이다. 속된 표현으로 광고카피에 ‘늠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최근에는 점점 더 그 횡수가 많아지니 비어가는 호주머니 사정을 차치하고 분통터지는 속내를 자제시키는 편이 훨씬 더 어렵다. 비참함에 책장을 덮다가도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기 마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나마 꽤 마음이 진정됨을 경험한다.

넘쳐나는 텍스트의 압박. 대, 중, 소제목만 추려도 얼추 내용이 짐작되는 책 주제에 왜 그리 사설이 많은지..., 그런 책들을 정독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무렵.

책 스스로가 독자를 배려하는 듯 보이는 이 책, 《나의 마지막 남은 검은 머리카락 하나》 외려 ‘너무 독자 편의로 편집했다’ 싶은 장도 있다. 그러나 읽어보니 남다른 즐거움이 느껴지는 생각거리가 있다. 여운이라고 해야 할까. 나이듦에 있어서 누구나 느끼는 사사로운 감정의 변화들을 솔직하고 위트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겠다.

“늙은 사과는 햇간의 어둠 속에서 겨울을 보낸 탓에 향기롭고 부드러우며 달콤하다”

저자는 예순 살 생일날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끄면서 도무지 믿기

힘든 자신의 나이에 힘들어한다. 신통찮은 선물들을 육십 해 받아온 것도 그렇고 미적지근한 샴페인도 덕담도 ‘겁나다’고 표현한다. 호흡이 가쁠수록 붙어야 할 초가 많다진다니!

검은 머리카락뿐인 남은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전에는 나도 꽤 괜찮았군’ 흐뭇한 것도 잠시. 그러나 지금은 한가닥 밖에 남지 않은 검은 머리카락.

신발, 벽지, 자동차, 계단 오르기의 힘겨움, 발의 티눈..., 일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나이듦의 힘겨움을 유쾌한 상상과 독설을 통해 여유 있게 넘어가려 애쓰는 저자의 노력이 독자 누구라면 공감할 만하다.

겁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연극배우들이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 노화가 왔다. 귀에서 무릎 관절에서 머리카락에서. *******